

모던K 영상수업 - 모던K수강생이 꼭 알아야 하는 장르별 아티스트

1.블루스(Blues)



비비킹
B.B. King
미국
1925/9/26~ 2015/5/14

- 처음에는 구전민요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형식의 음악이었음.
- 로버트 존슨 같은 걸출한 기타리스트의 등장으로 블루스는 기타를 중심으로 한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해짐
- 일렉트릭 기타의 발전으로 인해 블루스의 거칠고 원초적인 에너지가 자유롭게 표현되기 시작
- 락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음악.

- 블루스 본산지 미시시피강 유역 출생. 알버트 킹, 프레디 킹과 더불어 블루스 3대 킹.
- 1980년 블루스 명예의 전당, 1987년 락앤롤 명예의 전당, 2014년 알앤비 명예의 전당 헌액
- The Thrill is gone으로 그래미상 수상.

2.알앤비(R&B)



스티비 윈더
Stevie Wonder
미국
1950/5/13 ~ 현재

<시대별로 지칭하는 알앤비의 의미>
40년대의 알앤비는 재즈 기반의 음악/50년대는 일렉트릭 블루스/60년대는 가스펠과 소울음악
70년대는 Funk음악/90년대 들어서는 지금 우리가 널리 아는 컨템포러리 알앤비를 말한다.
- 알앤비의 대중화에 적극 기여한 것은 바로 모타운 레코드이다.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흑인음악 전문 레이블로서 레이찰스, 마빈게이, 스티비 윈더 등 걸출한 아티스트들을 발굴해서 성공시킨 회사이다.

-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시각장애인이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하모니카, 드럼, 기타 등 모든 악기를 섭렵한 신동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 성인이 된 뒤,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확립하여 70년대에 알앤비 음악사에 남을 명반들을 발매.
- 20대의 나이에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등 앨범 작업의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맡을 정도로 음악에 있어서의 영감과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3.펑크(Funk)



제임스 브라운
James Brown
1933/5/3 ~ 2006/12/ 25

- 재즈, 리듬앤블루스, 소울이 결합된 형태로, 제임스 브라운에 의해 발전 및 확산됐다.
- 타악기와 베이스 기타로 이뤄지는 리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음악.
- 변주를 자주 행하기보다는 동일한 리듬을 반복하는 구성이 많다.
- 브라스와 함께 오르간, 클라비넷, 신디사이저 등 건반악기가 많이 사용된다.
- 디스코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하우스, 힙합, 애시드 재즈 등의 음악으로 발전 하게 된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실력파 가수 중 한 명이며, "소울 뮤직의 대부"라 불린다.
소울(Soul)이라는 음악 장르를 완성했고, R&B(리듬 앤 블루스)의 유행에도 큰 업적이 있으며 펑크 뮤직이라는 장르를 열었다.
마이클 잭슨, 프린스, 믹 재거(롤링스톤스), 데이빗 보위 등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었다.

4.디스코(Disco)



비지스
The Bee Gees
배리 깁(1946 ~)
로빈 깁(1949 ~ 2012)
모리스 깁(1949 ~ 2003)

- 펑크 음악이 점점 업비트가 강해지면서 더 이상 펑크의 범주에 엮을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업비트의 빠른 펑크 음악을 "디스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 1977년 12월 개봉된 '토요일 밤의 열기 (Saturday Night Fever)'라는 영화와 동시기에 발매된 사운드 트랙이 베스트 셀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게 된다.
- 비트가 세분화 되어 엄청나게 그루브하게 연주하는 드럼에 반해, 나머지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가 다소 단조롭게 연주되는 경우가 많다.

호주에서 결성되고 영국에서 활동한 디스코 음악의 신화라고 불리는 3인조 그룹이다.
1967년에 발표한 《Bee Gees 1st》 앨범의 〈Massachusetts〉가 히트하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였다.마이너 장르에 불과했던 디스코를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를 통해 단숨에 세계인의 인기를 받게 한 장르로 변화시켰고, AC/DC와 함께 호주를 음악 강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식 앨범 판매 집계량은 2014년 기준 약 6천 7백만장으로, 공식 집계 기준으로 세계에서 음반이 27번째로 많이 팔린 그룹이다.

5.락(Rock)



레드 제플린
Led Zeppelin
영국/1969년~1980년
보컬: 로버트 플랜트
기타: 지미 페이지
베이스: 존 폴 존스
드럼: 존 본햄

- 반항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음악. 기성질서를 거부, 파괴하면서 발전해온 음악.
- 그러다보니 50년이라는 짧은 역사 안에 가장 많은 장르적 분파를 낳게 됨.
- 전기적인 사운드를 이용해 5명의 연주로 5만명의 관객을 열광케 하는 음악.
- 음악적 뿌리가 블루스에 있다보니 연주 시 사용하는 음계가 대부분 블루스 스케일에 있음.

- 모든 파트의 연주자의 기능적 테크닉이 고루 발달된 최초의, 최고의 밴드.
-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판매고를 올린 밴드(비틀즈에 이어 2위)
- 하드락의 시대를 연 밴드. 락 연주의 테크닉과 강렬한 사운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연주의 가능성을 제시한 밴드.
- 하드락을 넘어서 싸이키델릭, 아트록 등 다양한 사운드를 시도한 밴드.

6.힙합(Hiphop)



투팍
Tupac/2pac
1971/6/16~1996/9/13

- 엉덩이를 흔들다(Hip-Hopping)라는 말에서 유래된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음악.
- 음악의 한 장르이기도 하지만 문화전반에 걸친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랩, 디제잉, 스크래치, 그래피티, 비트박스, 패션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의 집합체)
- 펑크(Funk), 디스코, 재즈 등 6,70년대의 흑인들이 즐겨 들던 음악에서 발전된 장르이다.
- 음악을 틀던 DJ이 들이 내뱉는 추임새들이 발전 되어 '랩'이라는 형태로 거듭나게 되었다.

서부 힙합의 대부, 힙합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의 랩퍼이자, 배우이다.
1991년 '2Pacalypse Now' 라는 앨범으로 데뷔하였고, "Trapped"와 "Brenda's Got A Baby."가 성공을 거두었다. 이 후 발매하는 앨범마다 성공을 거두고, 사후에도 많은 수의 앨범이 발매되었다. 에미넴과 더불어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힙합 뮤지션으로 불리 운다. (7700만장)

7.보사노바/ 삼바 (Bossa nova / Samba)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Antônio Carlos Jobim
브라질
1927/1/25 ~1994/12/8

- 포르투갈 어로 '새로운 성향'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브라질에서 발전한 춤의 장르이자 리듬인 삼바에서 타악기의 비중을 줄이고 멜로디를 더욱 감미롭게 하여 연주하기 시작한 음악이 보사노바이다.
- 클라베 리듬을 기본으로 하여 연주 되며, 서정적인 멜로디와 지적이고 차분한 가사를 가지고 있고, 이와 상반되는 다소 복잡한 화성진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현재는 보다 상업적이고 팝의 성향을 많이 띤 형태로 꾸준히 연주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의 음악가. 보사노바의 아버지 나아가 보사노바의 신이라 불리며, 보사노바라는 흐름을 만들고 전 세계에 전파한 인물이다.
그의 대표곡인 'The Girl from Ipanema' 가 수록 되어있는 《게츠/지우베르투》(GETZ/GILBERTO) 앨범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 후 솔로 활동도 성공을 거두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음악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섬세한 멜로디 라인과 화성진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8.레게(Reggae)



밥 말리
Bob Marley
자메이카
1945/2/6 ~ 1981/5/11

- 60년 중반 자메이카 음악가들은 스카를 더 느리게 연주하며 이 장르를 록스테디라고 불렀다. 60년대 말에 음악가들은 록스테디를 보다 느리게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더하여 레게를 만들게 되었다.
- 가사는 가난한 자메이카 사람들이 갖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종교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다.
- 4/4박자에 불규칙하면서 강한 악센트가 특징이다.
- 짧은 리듬을 전기 기타와 드럼 세트, 오르간, 피아노로 반복하여 연주한다.
- 느긋한 분위기와 여유가 넘치는 구성이 대부분이다 .

영국인 장교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밥 말리는 16세에 가수로 데뷔 후 레게음악과 함께 음악스타일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첫 앨범인 'Judge Not' 은 레게 음악 보다는 칼립스 리듬을 바탕으로 한 음악에 가깝다.
이 후 스카, 록스테디를 거치면 레게음악의 슈퍼스타로 자리 매김 하게 된다.
1974년 "Catch a Fire"를 발표 하면서 전 세계에 레게라는 음악을 알리게 되고
1994년 록큰롤 명예의 전당 '공연자(performers)' 부문에 올랐다.

9.EDM (Electronic Dance Music)



데이비드 게타
David Guetta
프랑스
1967/11/07 ~ 현재

- 70년대 디스코텍에서 Funk 음반이나 디스코 명반을 틀어주며 춤을 추는 문화가 80년대 힙합문화에 고스란히 스며들. 주로 70년대 Funk나 디스코 음반들을 믹스해서 그 위에 랩을 하는 것이 80년대 힙합의 샘플링 문화로 자리 잡음.
- 춤추는 클럽에서 연주자들이 대신 샘플링한 음원을 틀어주는 DJ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90년대에 컴퓨터 음악의 발달로 음원을 샘플링하고 믹스하는 것이 간단해 짐.
다프트 펑크나 케미컬 브라더스같은 디제이들이 90년대 빅비트와 하우스 열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EDM의 팬덤을 형성하게 됨.

80, 90년대 파리 클럽 디제이 활동을 시작으로 2001년 1집 앨범을 발매하면서 데뷔.
- 2집 앨범 Guetta Blaster가 영국, 미국 댄스뮤직 차트 1위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거머쥔.
- 2000년대 초반 EDM은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으며,매니아들을 위한 음악이었다.
데이비드 게타는 EDM이 유행하지 않았던 미국시장을 개척하였고, EDM과 팝음악과의 융합을 시도하여 큰 성공을 가져왔다.

10.네오소울 (Neo Soul)



디안젤로
D'Angelo
미국
1974/2/11 ~ 현재

- 80년 후반과 90년대 초반 사이에 기존에 메인스트림을 장악하고 있던 컨템포러리 알앤비의 대체제로써 네오소울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함.
- 기존 알앤비에 비해서 좀 더 비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노래를 중심으로 한 송품보다는 오히려 랩을 하는 힙합에 더 가까운 송품을 갖고 있다.
- 할렘과 게토를 연상시키는 어두운 분위기와 관능적인 분위기가 장르의 주 정서를 이루고 있다.
- Acid Jazz와 Lounge 계열의 음악이나 요즘 유행하는 Chill Trap과 향을 끼친 음악이다.

- 1995년 Brown Sugar라는 앨범 한 장으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디안젤로. 20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정규앨범은 단 3장. 게으른 천재가 연상되는 천재 네오소울 아티스트.
- 한번도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 년센스. 그가 연주하는 펜더로즈의 선율과 음색은 가히 네오소울에서의 피아노를 정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랩핑을 하듯 자유롭게 읊조리는 노래 속에 섬세한 음색이 어울려져 거친 듯 부드러운 감성을 잘 전달하고 있다.